



성모님의 보호를 비는 마음으로 차에 묵주를 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길을 걷다가 혹은 지하철 안에서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교우를 만나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 홀로 ‘축복’을 전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차 안에 묵주가 매달려있는 경우를 보면 난감할 따름입니다. 차에 묵주를 걸어 놓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매달린 묵주를 보신 성모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요? 딱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입니다. 나아가 하느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묵주는 사고를 막아주는 부적이 아니며, 또 장식품도 아닙니다. 반지 묵주가 악세서리로 사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성물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잃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로 어서, 그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기복적이고 왜곡된 신앙관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십시오. 묵주는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를 바치는 일이 용이하도록 성모 어머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도구입니다. 묵주를 곁에 두고 보는 것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도가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묵주 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게 하는 기도가 없으니 묵주 기도를 사랑하고 매일 정성스럽게 바치라”고 유언하신 교황 비오 10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묵주 기도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이렇게 설명하세요』, p.100~101,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겔세마니 동산 - 고통의 교회>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도움을 청하는 노래

(시편 54,3-9)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70장 “평화를 구하는 기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평화의 주님! 저희 마음이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54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54,3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 4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소서.

- 5 이방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니
그들은 하느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셀라
- 6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시다.
- 7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 8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로 바치오리다.
주님,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다.
- 9 당신의 그 이름이 저를 구원하시어
제 눈이 원수들을 내려다보겠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내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은 사무엘기 상권 23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은거해 있던 다윗은 크일라 지방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와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여쭙고 크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도울 여력이 없다는 부하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크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다윗이 크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그를 해치기 위해 성읍을 파괴하려 합니다. 몰살당할 것이 두려웠던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자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 나와 자신이 구해준 적이 있던 지프 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지프 사람들 역시 사울에게 고발하여 다윗은 더 이상 피해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과거에 다윗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사울이 두려워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할 때 마다 분노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왕이 됩니다. 적들의 공격과 미움 앞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

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12,17-19)

여러분은 기도의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과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3장 “주님은 나의 목자”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실천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

- 수산본당 구역분과장 고민주 마리아 -

밀양시 하남읍에 위치한 수산본당은, 1996년 10월에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하남읍과 초동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현재 488명의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시동반, 시서반, 명례반, 대성반, 초동반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를 활용하여 복음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례반 모임에는 매달 최봉원 바오로 주임신부님께서 방문하셔서 미사를 함께 봉헌한 후 모임을 가집니다.

근래에는 귀촌, 귀농하는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타지에서 전입해온 신자들이 낯선 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공동체 모임에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례반에서는 귀촌 가정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축복식을 겸하여 반모임을 가졌는데 최봉원 바오로 주임신부님을 비롯한 다른 반 교우들도 많이 참석하여 진심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수산본당은 얼마 전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싸자본당과 문화적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치 만들기’와 같은 문화 체험 기

회를 마련하고 있고, 일본 교우들과 소통하기 위해 매주 본당에서 마련한 일본어 강좌에는 많은 반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우 대부분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 생명 존중에 관심이 많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입니다. 복음나누기 중 ‘생명의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고, 그에 알맞은 실천사항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인접한 낙동강 제방에서 시동반, 초동반이 주축이 되어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곧바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항아리에 일일이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당신의 구원사업에 협력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알기에 수산본당 소공동체는 친교와 나눔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생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